

강진 '제4회 썩잡이 체험행사' 개최

다음달 15일부터 이틀간 봉황마을 대섬갯벌 일원서 참가자 모집 ... 초·중·고교생 5천원 대학생부터 1만원

갯벌에서 즐기는 썩잡이 재미에 바닷바람 맞으며 강진만 풍경도 즐길 수 있는 강진 제4회 썩잡이 체험행사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량면 봉황마을 대섬(竹島) 갯벌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에 강진군은 '제4회 썩잡이 체험행사'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제4회 썩잡이 체험행사'는 다음달 15일 오전 12시부터 시작된다.

웅기로 더욱 유명한 칠량면 봉황마을 죽도 갯벌에서 썩잡이와 바지락 캐기, 펄낙지 잡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행사가 치러질 죽도 일원은 드넓게 펼쳐진 바다와 갯벌, 후박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바다의 보물인 썩, 바지락, 낙지 등의 생산량이 많은 곳이다.

썩을 잡기 위해선 장화를 신고 삽과 바구니를 챙겨야 한다.

삽으로 갯벌 표면을 걷어내면 손가락 굵기보다 약간 더 큰 연탄구멍 모양이 숭숭 뚫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한 번 갯벌을 한 삽 뜨면 구멍에 숨어 있는 썩을 잡을 수 있다.

체험비는 초·중·고등학생까지는 5천원, 대학생부터는 1만원이며 체험에 필요한 장비인 삽, 장갑, 바구니는 무료대여지만 장화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

썩잡이 체험은 유료 체험자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약을 반드시 해야



지난해 6월 치러진 제3회 썩잡이 체험행사 모습. /강진군 제공

하며, 인원제한으로 썩잡이 체험을 못하는 사람에게 대신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무료 갯벌 체험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먹거리 체험장이 마련돼 있어 썩잡이 체험행사에 오는 모든 방문객은

썩 튀김과 향기 그윽한 썩 젓갈등 이색 썩 요리도 맛 볼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총무팀(061-430- 5542, 5543)으로 하면 된다.

/강진=전운재 기자 wjzun@

화산 삼마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해남,토지대장·지적도새로작성

해남군이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화산 삼마지구 451필지, 81만 8천 116.3㎡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 잡게 된다.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삼마지구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전체 토지가 임야로 등록된 기존의 임야 대장과 입야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했으며, 토지등기부정리를 위한 등기촉탁 업무도 관할 등기소에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남군은 새로운 경계확정으로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지급·징수 중에 있다.

/해남=김대수 기자 abc6789@

기사제보 227-0000



무안군은 초의선사 탄생 233주년을 기념하고 선사의 차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초의선사 탄생문화제'가 지난 11일 삼향읍 왕산리에 위치한 초의선사 탄생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무안군 제공

'제233주년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 성료

무안군민 등 3천여명 참여

무안군은 초의선사 탄생 233주년을 기념하고 선사의 차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초의선사 탄생문화제'가 지난 11일 삼향읍 왕산리에 위치한 초의선사 탄생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 13일 밝혔다.

이날 초의선사 탄생문화제에는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차 문화계 인사, 관광객, 군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해 선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선다일여(禪茶一如)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문화제는 최근 제천 다례, 별빛차회 등 전야제를 시작으로 행사 당일에는 초의선사 한다 및 제물봉헌의례, 5법공양 한다례를 비롯해 청소년 글짓

기 및 사생대회, 초의선사 발우공양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서화탄본, 떡메치기, 찻잎 따기, 도자기 빚기 등 각종 체험 행사와 율놀이, 투호던지기, 팔씨름 등의 읍면대학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진행돼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무안=이훈 기자 rkals@

신우철 완도군수, 글로벌 리더 선정

해양치유산업 육성·해외시장 개척 등 높이 평가

완도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후원하고 매경미디어그룹에서 수여하는 '2019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에 신우철 완도군수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의 시장 개척 활동에 적극 나섰다.

뿐만 아니라 완도군은 미래 100년 먹거리 해결을 위해 해

양치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19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자치단체장과 기업대표, 학교 총장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환경, 사회 공헌, 기술 혁신, 브랜드, 인재 양성, 경영 혁신, 품질·연구 개발(R&D) 등 8개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일궈낸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완도군은 투자 유치 분야에서 해양치유산업 육성과 완도 전복의 아시아

최초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 ASC 획득, 완도산 수산물 해외 판로 개척,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육성, 우리나라 최초로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이 친환경 해변에만 주어지는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을 받는 등 이러한 점들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특히 완도군은 지난해 홍콩과 베트남, 미국 등 현지에서 2천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850만 달러의 수출 실적 달성, 5개국 현지 우수업체와 업무협약을 16건 체결하며 해

양치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19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해양치유산업의 기반 시설이 될 해양치유전문병원과 해양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치유리조트, 해양바이오연구소, 기업 민자 시설 등을 유치하는 일에도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금 우리 군은 고령화, 저출산, 전출 등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완도의 희망이 될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청장년층이 돌아오고 모두가 살기 좋은 완도를 만들고,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완도가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유대성 기자 yds@

영암, 공립 지역아동센터 차량 전달식 개최

영암군은 최근 공립 시중밖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보호차량을 전달하고 아동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중밖지역아동센터는 민선6기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설립된 전남도 제1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이번엔 지원한 차량은 영암군에서 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구입해 지원했으며 아동들의 귀가 지원 및 체험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학부모,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전달식은 손점식 부군수가 종사자 및 아동들에게 차량을 전달하고 함께 시승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손점식 부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과후 아동 돌봄에 힘쓰고 있는 종사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큰 꿈을 갖고 바르게 성장해서 지역사회를 빛내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관한 공립 시중밖지역아동센터는 영암군의 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삼성전자, 지역사회 후원자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29명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전남도민일보 한국언론진흥재단